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사무소 해외동향보고서	작성팀	마케팅지원팀
		담당자	하원정 소장
		일시	2025. 2

CEPA Insight

- 한국, 신수도 스마트시티 협력센터 건립 지원 나서
- (코트라) 인도네시아 농업시장과 스마트팜 전망
- 프라모노-라노 당선인, 자카르타 개혁 100일 공약 발표
- 인도네시아, 브릭스 가입으로 경제적 이익 확보 노력

■ 한국, 신수도 스마트시티 협력센터 건립 지원 나서

- 2025년, 인도네시아 신수도(Ibu kota Nusantara, 이하 IKN)에 한국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 지원으로 스마트시티 협력센터(Smart City Cooperation Center, 이하 SCCC)가 건립된다. 이 센터는 스마트시티 기술 개발과 연구를 진행하며, 한국의 경험이 IKN의 디지털 생태계와 친환경 기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은 IKN의 통합지휘통제센터(Integrated Command and Control Center 이하 ICC) 프로젝트에도 참여해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

(출처 : 한인포스트, 2025. 1. 15.)

■ (코트라) 인도네시아 농업시장과 스마트팜 전망

- 인도네시아 농업 시장은 2028년까지 연평균 8.5% 성장하여, 3,36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이 성장은 스마트팜 기술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품질 개선 관련 수요 증가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인도네시아 언론사 Antara와 인도네시아 농림부 장관 직무대행 Arief Prasetyo Adi의 인터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2024년에 3,500만 톤의 쌀을 생산하여 쌀 수입을 최대한 자제할 계획이다. 2023년 인도네시아는 350만 톤의 쌀을 수입했으며, 2024

년에는 150만 톤을 추가로 수입할 예정이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쌀 자급을 위한 꾸준한 노력으로 2022년 국제 쌀 연구소(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로부터 공로상을 받았다. 또한, 인도네시아 농림부 장관 직무대행인 Arief Prasetyo Adi는 지난 10월 Antara와의 인터뷰에서 수입된 쌀이 인도네시아 식량 조달청(Badan Urusan Logistik, 이하 BULOG)의 비축분이라고 설명했다. 비록 쌀의 자급률이 높은 기초 식량이지만 인도네시아 농업 시장은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 농업에 필요한 장비와 기술이 부족해 생산성이 낮고 품질의 균일성이 떨어져 생산물의 가치가 적은 상황이다.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은 인도네시아 농업 시장을 조사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팜 시장의 잠재력을 분석했다.

- 인도네시아의 농업 시장 규모는 1) 아세안에서 1위, 세계에서 4위의 쌀 생산국, 2) 팜유와 코코넛의 최대 생산국, 3) 고무, 커피, 카카오의 상위 3대 생산국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농업 인프라와 기술이 부족하고, 대부분의 농민들이 전통적인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생산성 향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부족한 장비와 기술.** 인도네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옥수수는 쌀에 이어 인도네시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생산되는 농작물이다. 그러나 여전히 옥수수는 수입되고 있다. 2022년 인도네시아 산업부 발표에 따르면, 농가의 열악한 장비로 인해 옥수수 생산이 제한적이며, 아플라톡신(Aflatoxin) 함량 기준 20ppb(parts per billion)을 충족하지 못해 식용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는 부족한 공급을 채우기 위해 많은 양의 옥수수를 수입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농가는 약 55%의 농작물이 손상되며, 이는 선별기와 보관 기술 부족 때문이라고 한다. 모링가 빠른 가공이 필요하지만, 기술 부족으로 대부분 폐기된다. 농가들은 여전히 수동 건조기를 사용하고 있다.
- **낮은 농업 생산성.** 인도네시아 농업 종사자의 93%는 소규모 농가로, 대부분 현대화된 기술과 장비에 접근하지 못해 생산성이 낮다. 농업 도구와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농가는 47%에 불과하고, 61%는 0.5헥타르 미만의 농지를 관리한다.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가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부족한 농업 인프라와 기후 변화로 생산성이 더욱 낮아지고 있다.
- **낮고 균일하지 못한 농산품의 품질.** 인도네시아 소비자를 대상으로한 KOTRA 자카르타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40대 여성 A씨는 인도네시아 쌀보다 태국 쌀을 선호한다고 했다. A씨

의 의견에 따르면 동일한 품종의 쌀이라도 태국에서 생산돼 수입되는 쌀이 맛과 품질 면에서도,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보다 우월하다고 한다. 인도네시아 식량 조달청(BULOG) 사장이었던 Budi Waseso는 2022년 1월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하원 회의에서 수입 쌀이 훨씬 저렴하고 품질도 좋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인도네시아에서 재배되는 쌀의 품질이 낮은 구체적인 이유 중 하나가 수분 함량이 기준치 이하라는 점을 언급하며, 현대적인 농업 도구와 기술이 농민들에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은 품질과 가격이 우수한 수입 쌀과 과일을 선호한다. 인도네시아 농산물은 품질 기준 미달로 균일하지 않다.

- 인도네시아 정부는 농업 혁신과 시장 개선을 위해 연구개발 확대 및 기술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농기계 시장은 낮은 보급률과 수입 의존도가 높아 기회가 많고 스마트팜 기술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농업 기계화 및 스마트팜 기술 협력을 강화했으며 농업 시장은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한인포스트, 2025. 1. 22.)

■ 프라모노-라노 당선인, 자카르타 개혁 100일 공약 발표

- 프라모노 아농 위보워와 라노 카르노는 2025-2030년 자카르타 주지사와 부주지사로 공식 당선되었으며, 취임 전 100일 동안 실행할 주요 정책들을 발표했다. 두 사람은 선거 기간 동안 방문했던 지역들을 다시 찾아가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주요 공약으로는 캄퐁 바얌(Kampung Bayam)과 타나 메라(Tanah Merah) 지역의 문제 해결, 자카르타 스마트카드(Kartu Jakarta Pintar), 자카르타 건강보험(Jakarta Sehat), 노인 복지 등이 있다. 프라모노는 현장에서 심각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해결할 것이며, 공약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분은 이미 자카르타 선거관리위원회(KPU)에 의해 공식 당선자로 확정되었으며, 취임식은 2025년 2월 7일로 예정되어 있지만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해졌다.

(출처: 한인포스트, 2025. 1. 14.)

■ 인도네시아, 브릭스 가입으로 경제적 이익 확보 노려

- 인도네시아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구성된 브릭스(BRICS) 공식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루훗 빈사르 판자이탄 국가경제협의회(Dewan Ekonomi Nasional, 이하 DEN) 의장은 이 가입이 시장 확대와 경제 주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브릭스 가입이 인도네시아의 수출 시장 확대와 경제 안정을 도울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브릭스 가입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다른 국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신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는 세계 경제에서 더욱 강한 입지를 다질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한인포스트, 2025. 1. 14.)

 <p>(출처 : 한인포스트)</p>	 <p>(출처 : 한인포스트)</p>	 <p>(출처 : 한인포스트)</p>
<p><인도네시아 신수도(Ibu Kota Nusantara) 대통령궁 건너편 공원 단지></p>	<p><인도네시아 농업시장 규모></p>	<p><인도네시아 소규모 농가의 작업환경></p>

 <p>(출처 : 한인포스트)</p>	 <p>(출처 : 한인포스트)</p>
<p><2024 자카르타 선거에서 Pramono-Rano 주지사 부지사 당선인 2024. 12. 10></p>	<p><중국 외교부 인도네시아 BRICS 가입 공고. 2025. 1. 6></p>